

학원자주화투쟁 선포

총학, 진군식에서 학생운동탄압 분쇄 결의

양캠퍼스 총학생회 진군식이 지난 11,12일 각각 노천극장과 체육과학관 앞 혁명광장에서 열렸다. 서울캠퍼스는 지난 11일 오후 3시 단대 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3백5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천준호(법학·4) 법대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7월 연행돼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중

인 한철수(신방·4) 총학생회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수경(신방·1)양이 낭독하였으며 이어 윤애경(생물·4) 농·학연대사업부장과 김윤희(수학·3) 수학과학생회장등 5명에게 '모범간부표창'이 수여되었다. 또한 이번 진군식에 즈음하여 새롭게 출범한 '학원탄압분쇄 대책반' 반장 김경구(신방·4) 학원자

주화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이 학칙개정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학원안정화대책의 허구성을 폭로하였으며 이를 분쇄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하계방학중 있었던 '91 범민족 대회'가 일기형식으로 발표되었으며 최성용(법학·4) 부총학생회장의 총노선 선포 및 결의가 있었다. 한편 본 행사후 정경대·가정

대 연합 노래대인 '동트는 새벽'을 중심으로 노래동아리들의 축하공연이 있었으며 이어 대동제 및 딱지치기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한편 수원캠퍼스 제23대 총학생회 2학기 진군식이 지난 12일 5백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체육과학관 앞 혁명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진군식은 총학생회 진군식뿐 아니라 그간 총학생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거해 2학기 사업계획에 대한 인준을 받는 학생총회의 성격도 병행돼 실시되었다. 최만식(경영·4) 동아리연



동연, 학생회관내 소극장 요구

학교측과 협상 통해 가시화

수원캠퍼스 동아리 연합회(이하 동연)는 학생회관 2층에 들어 서기로 한 소극장 건설에 관해 오늘 체육과학관 기획관리실에서 학교측과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학교측에서는 현재 학생회관 2층을 열람실로 사용하고 있어 공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학생회관이 아닌 공과대학관 시청각실을 개조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동연측에서는 "소극장건설

투쟁위원회를 건설하고 방학중과 개강이후 학교측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왔으나 아무런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오늘 단한번의 협상을 통해 소극장건설을 추진하고 만일 오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필코 소극장을 건설할것"이라 밝혀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소극장은 그

간 마땅한 공연장소가 없어 각 단과대학내 시청각실을 전전해오던 공연팀들이 안정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고심해오던중 학생회관 완공과 더불어 소극장의 개설을 학교측에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창교수등 5인 도서기증

전공 관련 서적 2천4백여권

김경창(정경대·정치학)교수등 5명이 도서 2천4백12권을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에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된 도서는 교수들의 전공서적이 대부분으로 김경창(정경대·정치학)교수 6백72권, 민준기(정경대·정치학)교수 2백

43권, 박기반(사범대·영교과)교수 9백권, 김선호(사범대·교직과)교수 1백권, 임문규 경희고등학교선생 4백97권이다. 한편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은 도서 1백만권 확보의 일환으로 계속적인 도서수집을 하고 있다.

등록금 협상 합의사안 점검

학교측 병원전입금중 35% 추경예산 반영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산하 예산·결산 심의위원회(이하 예결위)는 학교측의 예산자료를 근거로 건물공사비 지출 내역등을 등록금 협상시 합의사안에 대해 중간점검을 실시했다. 첫째로 '건설가계정은 재단전입금, 국가보조금, 기타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등록금예산에서 지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사항에서 예결위는 건물공사비 3천76만3천원의 돈이 등록금 예산에서 쓰여졌다고 주장했으며 학교측도 이를 인정하였다. 또한 예결위는 '임상교수의 인건비인 병원전입금은 91년도에 85%로 한다'는 사항에 대해 중간점검결과, 50%만이 전입되고 나머지 35%는 학교에서 부담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학교측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석 귀향버스 운행

17일까지 인복위서 접수

수원캠퍼스 총학생회 산하 인권복지위원회는 추석을 맞이하여 지방학생들의 귀향편의를 위해 추석귀향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에 학교에서 출발하게 될 이번 추석귀향버스의 신청접수는 오는 17일까지 학생회관 3층 인권복지위원회 사무실에서 실시하며 승차원인 40명 단체의 경우 서울 시내 원하는 곳에서의출발도 가능하다. 귀향버스의 각 구간별 요금은 ▲부산, 마산, 목포, 순천, 여수:5천원 ▲울산:4천5백원 ▲포항, 광주:4천원 ▲대구, 전주, 안동:2천5백원 ▲강릉:3천원 ▲원주, 대전:2천원으로 일반 고속버스 요금보다 30~40% 할인된 요금이 다.

추석 귀향버스 운행

17일까지 인복위서 접수

한편 노선이 선정된 구간의 타지역의 경우도 40명 이상 신청할 경우 노선을 신설, 운행할 예정이며 동문회와 향우회 등 단체신청의 경우 우선접수된다. 한편 서울 인권복지위원회도 12,13일 1차 예매에 이어 오늘과 내일에 걸쳐 2차 예매를 실시한다.

성적경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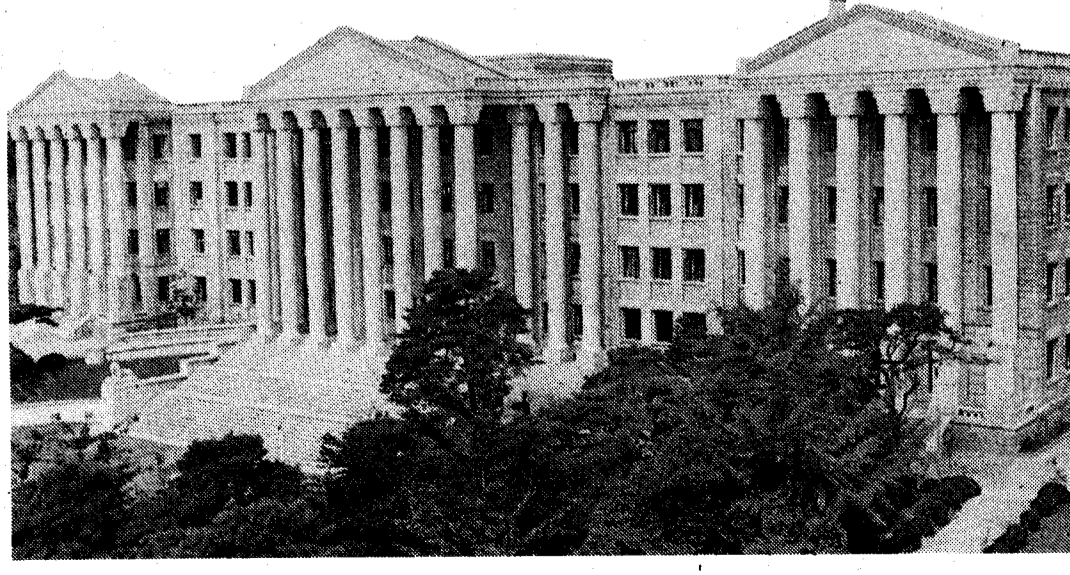
내년 시행

6·3 한국 외국어대 사태 이후 줄곧 논의돼온 학사경고제가 본교에서도 지난 10일 열린 교무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되게 됐다. 본관 2층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조영식 총장과 양캠퍼스 부총장 및 학·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본교는 제적조항만 삭제돼 있었던 학사경고제를 '성적경고제'의 형태로 부활했다. 이에 따라 학점 1.5미만의 학생에게 경고조치를 하며 연속

추석연휴로 1주 휴간합니다

제10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

'평화'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렇다고 뜨거운 사랑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를 감싸는 포근한 사랑입니다.
가공할 무기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지금
우리는 사랑의 실체를 한꺼풀 벗겨 봅니다
소박한 인류의 꿈을 지키려는 작은 마음으로.
치열한 냉전의 소용돌이가 멎고 21세기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댄 시대.

'사랑'은 '평화'입니다

국제평화연구소